

특별한 신라 조각, 두 가지

2017. 10. 12.
임 영 애 *

1. 반가사유상, 왜 특별한가.
2. 석굴암, 왜 명품인가.

1. 반가사유상, 왜 특별한가.

국보 83호 금동반가사유보살상, 6세기말~7세기초, 93.5cm, 국립중앙박물관
삼산관(三山冠), 반가 + 사유

* 반가사유상은 미륵보살(Bodhisattva Maitreya)인가?

日本 야주지[野中寺] 반가사유상(666년) 명문 ‘彌勒御像也’의 진위문제

* 중국 반가사유상은?

① 싯다르타 태자상

太和16年(492)銘 太子像 / 감실 안에 愛馬別離 / ‘太子思惟像’

② 미륵보살상

興和2年(540)銘 白玉菩薩思惟像(동위540년) 대좌 모서리

‘興和2年 清信佛弟子耶廣壽仰爲亡考敬造玉思惟一區 一軀願望考上生天淨妙國土…’

‘백옥사유상 1구를 삼가 조성하오니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하늘인 정묘국토에 상생할
것을 기원합니다’

도솔천 상생 / 미륵 신앙을 기반

*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저서 『교류로 본 한국불교조각』, 학연문화사, 2008; 최근 논문 “Images of the Four Heavenly Kings in Unified Silla as the Symbol of National Defense”, *Buddhist Studies Review* 32-2, 2015; 「한국 고대 불교조각의 허물어진 경계: 국보 제78호 반가사유상」, 『강좌 미술사』 45, 2015; 「『유마경』의 유마거사상과 문수보살상: 不二인 세속과 탈속」, 『미술사학연구』 286, 2015; “The Four Heavenly Kings of Jikjisa Temple Dated to 1665 of the Joseon Period and Their Significances”, *Korea Journal* 57-2, 2017.

龍華樹 아래 사유상 = 미륵상

天保8年(557)銘 白玉半跏像

‘…龍華之期一時悟道’

** 싯다르타 태자상인가, 미륵보살상인가

** 6세기~ 7세기 집중 조성

***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은 신라에서 만들었나?**

경주 단석산마애불상군(斷石山磨崖佛像群)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금동반가사유보살상, 6세기 후반, 83.2cm, 국립중앙박물관

고류지[廣隆寺]목조반가상, 7세기초, 147cm, 일본 교토 고류지소장 / 秦河勝

『일본서기(日本書紀)』 622년조 ‘신라 사신이 불상1구, 금탑, 사리 등을 가지고 왔는데 불상은 진사(秦寺)에 안치하고 나머지는 사천왕사(四天王寺)에 안치’

고류지를 세운 진(秦)씨 = 신라계

봉화 북지리 반가상, 현존175cm(추정250cm), 경북대학교 박물관

2. 석굴암, 왜 명품인가.

통일기 신라 조각을 대표하면서도 가장 ‘국제적’이라고 서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작품은 역시 석굴암의 조각이다. 8세기 중~후반에 제작된 석굴암은 치밀한 구조, 40구에 달하는 조각 등 어느 것 하나 새롭지 않은 것이 없다. 한반도의 단단한 석질은 인도나 중국과 같은 장엄한 석굴의 구현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한국은 다른 어떤 종류의 석재보다 화강암이 풍부하게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화강암은 불교조각에 적당한 돌이 아니다. 물론 내구성이 좋다는 점은 종교 조각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매우 단단하고, 무겁기 때문에 깎기도 어렵고 이동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인도나 중국에서 석굴사원을 본 누군가가 신라에서 ‘석굴의 재현’이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을 것이다. 이를 위해 신라인들은 석굴을 뚫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인공석굴이라는 방법을 택하였다. 751년부터 공사기간만 20여년을 훌쩍 넘긴 것만 보아도 당시 공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처럼 인공석굴이라는 점도 특별하지만 원형 평면 위에 돔(dome)형의 천정은 동아시아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특이하다. 오히려 이와 비슷한 구조가 아프가니스탄의 하이박 석굴이나 바미얀 석굴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흥미로운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독창성은 구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석굴암 안에는 불, 보살, 불제자, 신중(神衆) 등 40구의 존상이 위계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석굴암의 조각은 양식 면에서 중국 당나라 성당기(盛唐期) 불교조각의 영향이 감지되지만, 중국의 예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치밀하고 체계적이며, 섬세하게 조각되었다. 특히 원형 주실 정 중앙에 놓인 본존 불상은 화강암으로 만든 조각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조각이 정교하고 비례가 완벽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玄奘)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 기록된 인도 보드가야 대각사(大覺寺)의 불상과 그 크기가 거의 일치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중앙의 본존불과 주위의 권속이 어우러져 자아내는 장엄함은 보는 이를 압도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석굴암의 조각은 신라의 그 어떤 조각보다도 인도 지향적이며,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적인 걸작이라고 일컫기에 손색이 없다.

* 吐舎山(745m : 안개와 구름을 토하고 삼키는 산), 東岳

*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 『三國遺事』(卷第5 孝善 第9 大城 孝二世父母 神文王代)

"모량리의 가난한 여인 慶祖에게 아이가 있었는데, 머리가 크고 정수리가 평평하여 城과 같았으므로 이름을 大城이라 하였다. 집이 군색하여 살아갈 수가 없어 부자 福安의 집에 가서 품팔이를 하고, 그 집에서 약간의 밭을 주어 의식의 자료로 삼았다. 이때에 고승 漸開가 興輪寺에서 베풀고자 하여 복안의 집에 이르러 보시할 것을 권하니, 복안은 베풀을 보시했다. 점개는 주문을 읽어 축원했다. "檀越(보시를 행하는 사람)이 보시하기를 좋아하니 천신이 항상 지켜주실 것이며, 한 가지를 보시하면 1만배를 얻게 되는 것이니, 안락하고 수명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대성이 듣고 뛰어 들어가 그 어머니에게 말했다. "제가 문간에 온 스님이 외는 소리를 들었는데 한 가지를 보시하면 1만배를 얻는다고 합니다. 생각건대 저는 宿善(지난 세상에 지은 좋은 일)이 없어 지금 와서 곤궁한 것입니다. 이제 또 보시하지 않는다면 내세에는 더욱 구차할 것입니다. 제가 고용살이로 얻은 밭을 법회에 보시해서 뒷날 應報를 도모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도 좋다고 하므로 이에 밭을 점개에게 보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성은 세상을 떠났다. 이날 밤 **나라의 재상 金文亮**의 집에 하늘의 외침이 있었다. "모량리 대성이란 아이가 지금 네 집에 태어날 것이다." 집 사람들이 매우 놀라 사람을 시켜 모량리를 조사하게 하니, 대성이 과연 죽었는데 그날 하늘에서 외치던 때와 같았다. 김문량의 아내는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다. 왼손을 꼭 쥐고 퍼지 않더니 7일만에야 폄는데, 대성 두 글자를 새긴 金簡子가 있었으므로 다시 이름을 대성이라고 하고, 그 어머니를 집에 모셔 와서 함께 봉양했다.

이미 장성하자 사냥하기를 좋아했다. 하루는 토함산에 올라가 곰 한 마리를 잡고는 산 밑

마을에서 잤다. 꿈에 곰이 변해서 귀신이 되어 시비를 걸어 말했다. “네 어찌하여 나를 죽였느냐. 내가 환생하여 너를 잡아먹겠다.” 대성이 두려워서 용서해달라고 청하니, 귀신은 “네가 나를 위하여 절을 세워 주겠느냐”하고 말했다. 대성은 그러마고 약속했다. 꿈을 깨자 땀이 흘러 자리를 적시었다. 그 후로는 들에서 사냥하는 것을 금하고 곰을 잡은 자리에서 곰을 위해서 長壽寺(경주 마동 장수곡에 있던 절)를 세웠다. 그로 인해 마음에 감동되는 바 있어 자비의 願이 더욱 더해 갔다. 이에 이승의 양친을 위해 불국사를 세우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 石佛寺를 세우고, 神琳, 表訓 두 스님을 청해 각각 거주케 했다. 아름답고 큰 불상을 설치하여 부모의 양육한 수고를 갚았으니, 한 몸으로 전세와 현세의 두 부모에게 효도한 것은 옛적에도 드문 일이었다. 착한 보시의 영험을 가히 믿지 않겠는가.

...

절(불국사) 안에 전해져 있는 기록에 의하면, 경덕왕 때의 大相 대성이 천보10년(751)에 불국사 창건을 시작하여 다음의 혜공왕 10년, 즉 대력9년(774)의 12월 2일에 대성이 죽게 되어, 나라에서 절 짓는 공사를 완성하고는 처음으로 유가대덕인 향마를 이 절에 주지케 하였는데, (불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 왜 『三國遺事』 卷第5 孝善에 기록되어 있는가?

* 왜 신문왕(681~691)대로 기록되어 있는가?

신문왕 1년(681) = 김대성 사망 93년전

신문왕 11년(691) = 김대성 사망 83년전

→ 『佛國寺事績』 ‘慶祖의 아들로 태어났던 대성의 전생’

682년 경조의 아들로, 효소왕9년(700) 2월 15일 김문량 집에서 환생

* 김문량(金文亮 ?~711 중시재위 706~711)

* 경덕왕대 재상 김대성(金大城 700~774 중시재위 745~750) = 金大正

* 751(경덕왕10년)~775년?(혜공왕11년?) / 3.26m

■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 1625~1707) 『산중일기(山中日記)』

- 1686~1688년 네 번에 걸쳐 600일간 전국의 사찰 300여곳 방문

- 1688년 5월 15일 석굴암 방문

“석문 밖 양쪽 바위에 각각 불상 4.5위씩 새겨져 있는데 기이하고 묘한 것이 하늘이 빛은 듯하다. 석물은 돌을 무지개처럼 쌓아올렸으며 그 가운데에 커다란 석불상이 마치 살아 있는 듯

생생하게 모셔져 있다. 좌대석도 바르고 고르게 되어 있어 그 기이한 기교가 돋보인다. 굴 위에는 뚜껑돌과 여러 돌들이 올려져 있는데 바르고 깔끔하여 기울어지거나 흠이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 불상들이 살아있는 듯 열을 지어 서 있다. 참으로 기괴하여 그 모습을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런 기이한 광경은 보기 드물다. 한참 동안 보고 나서 내려와 석굴암에서 묵었다.”

* 석굴암의 조각 (40구, 現38구)

팔부중상(八部衆像 8구)

금강역사상(金剛力士像 2구)

사천왕상(四天王像 4구)

범천(梵天 1구)와 제석천(帝釋天 1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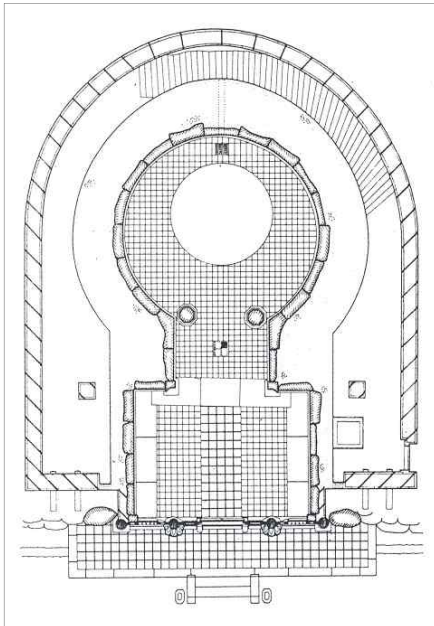
보살상(菩薩像 문수文殊, 보현普賢 각1구)

나한상(羅漢像) 또는 십대제자상(十代弟子像 10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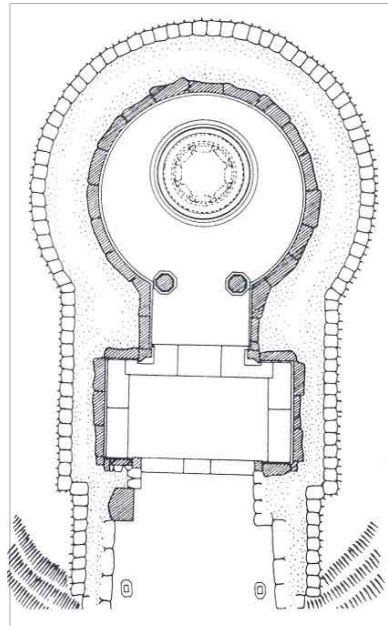
본존불상(本尊佛像 1구)

십일면관음보살상(十一面觀音菩薩像 1구)

감실보살상(龕室菩薩像 10구, 現8구)



<현재 석굴암>



<수리 전 석굴암>

■ 팔부중상 八部衆像 ■

* 팔부중 8구 중 2구는 왜 다른 상과 크기가 다른가?

1	천(天 Deva) : 옥계, 무색계의 여러 천왕이나 보살
2	용(龍 Naga) : 人頭龍神
3	야차(夜叉 Yaksa) : 머리가 세면인 귀신
4	건달바(乾闥婆 Gandharva) : 음악과 의약의 신
5	아수라(阿修羅 Asura) : 3面6臂
6	가루라(迦樓羅 Garuda) : 뱀 혹은 용을 잡아먹는 금시조
7	긴나라(緊那羅 Kinnara) : 음악신
8	마후라가(摩睺羅伽 Mahoraga) : 뱀을 신격화한 樂神

■ 금강역사 金剛力士 ■

* 금강역사 (○) / 仁王 (X)

* 아형 阿形과 흠형 吽形 금강역사의 등장

* 1910년 보수공사 당시 석굴암에서 발견된 또 다른 금강역사의 파편은?

■ 사천왕상 四天王像 ■

	梵語	漢譯	意譯	意味
東	Dhrtarasta	제두뢰타(提頭賴吒)	持國天王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西	Virupaksa	비루박차(毘樓博叉)	廣目天王	크고 넓은 눈으로 서방국토수호
南	Virudhaka	비루늑차(毘樓勒叉)	增長天王	중생의 이익을 증장
北	Vaisravana	비사문(毘沙門)	多聞天王	부처님의 설법을 경청

* 북방 多聞天 - 寶塔

■ 범천 梵天, 제석천 帝釋天 ■

제석천(Indra) - 금강저(金剛杵 vajra)

범천(Brahman) - 정병(淨瓶 kundika)

■ 문수,보현보살 文殊,普賢菩薩 ■

동근 잔 / 경책(經冊), 경권(經卷)

* 文殊菩薩 Manjusri Bodhisattva - '지혜'의 상징

上首菩薩, 부처의 대담자

* 普賢菩薩 Samantha Bhadra Bodhisttva - '넓게 뛰어남', 문수보살의 실천적 行願者

■ 十代弟子 또는 羅漢像 ■

'나한(羅漢)' = '아라한(阿羅漢)'

소승불교 수행의 네 단계 중 최고인 아라한 과(科)를 얻은 성자

부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제자, 16명, 18명, 500명으로 확대

■ 본존불상 本尊佛像 ■

대좌 높이 160cm, 불상 높이 340cm = 500cm (丈六尊=一丈六尺像)

항마촉지인(降摩觸地印) - 석가모니불

■ 십일면관음보살상 十一面觀音菩薩像 ■

■ 감실보살상 龕室菩薩像 ■

감실의 높이 - 바닥에서 4m 높이, 2ton 무게

유마거사 & 문수보살 + 8구의 보살상(?)

『유마경』 유마거사(Vimalakirti) - 주미(塵尾)

문수보살 - '不二'의 상징

지장보살, 미륵보살 등

[참고문헌]

경상북도, 2016 『신라사대계』 제19권, 신라의 조각과 회화

경상북도, 2016 『신라사대계』 자료집 제6권 불교문화 II

한국고대사학회, 2017 『우리시대의 한국고대사 1, 2』, 주류성

젊은역사학자모임, 2017 『사이비역사와 한국고대사』, 역사비평사

한국역사연구회, 2016 『한국고대사산책』, 역사비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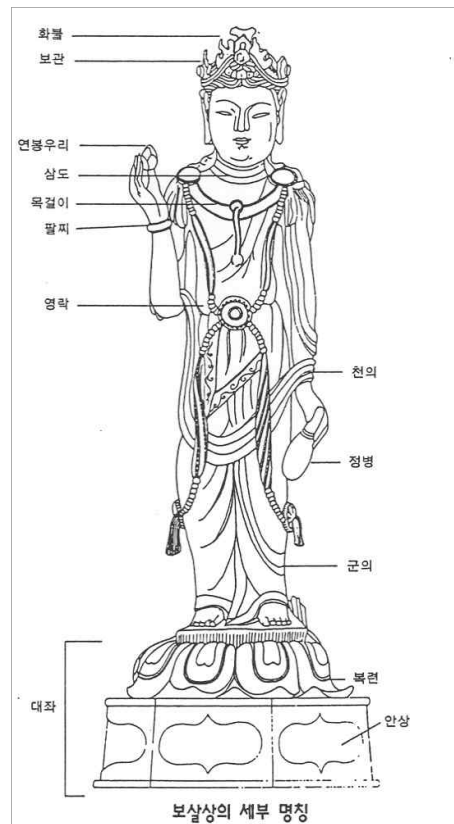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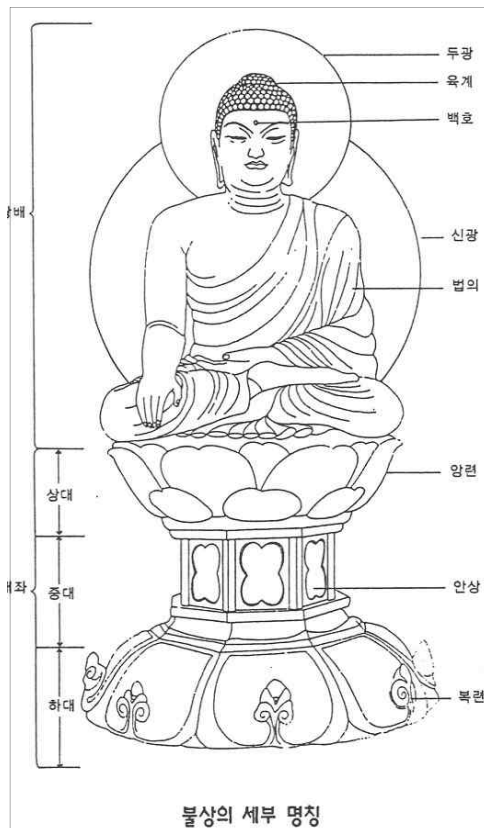
■ (참고) 불교미술 기본 개념 및 용어 ■

* 불교조각의 종류

- 불상 佛像 (석가모니불,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미륵불, 약사불 등)
- 보살상 菩薩像 (관세음보살상, 문수보살상, 보현보살상, 미륵보살상 등)
- 나한상 羅漢像과 조사상 祖師像
- 신장상 神將像 (四天王像, 金剛力士像, 八部神將像)

* 불상의 구성요소 불신(佛身) / 광배(光背) / 대좌(臺座)

* 불상의 옷 입는 법 : 통견(通肩) / 편단우견(偏袒右肩)



※ 참고자료 열람

1.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총 30권) 인터넷 열람 주소(e-book)

▶ http://www.gb.go.kr/open_silguk/silla_history/main.do ◀

2. 강의 자료, 한국고대사학회 홈페이지(시민강좌)

▶ <http://www.koreaancienthistory.net> ◀

<MEMO>

<절취선>

2017년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시민강좌 <시민 참여> 질문지

*강의 내용을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에 질문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질문지는 강사의 강의를 끝난 다음, 중간 휴식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